

해외출장(상해) 요약

부서 : 도시기반본부

자료제공 : 김인희

작성일 : 2024년 1월 5일

게시요망일 : 2024년 1월 8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중국 상해 제6회 MPIC(Metropolitan Plan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컨퍼런스 참가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 배경

- 중국 상해에서 12월 2일~4일까지 제6회 MPIC(Metropolitan Plan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개최. 올해 주제는 ‘메가시티의 미래와 도전’이며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상해, 서울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
- 서울시 메가시티 사례와 이슈에 관한 발표 요청

1) 상해 국제 컨퍼런스 발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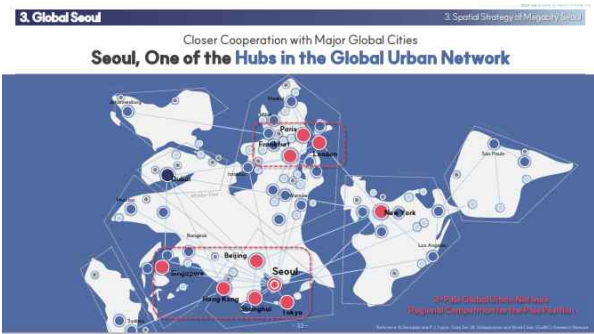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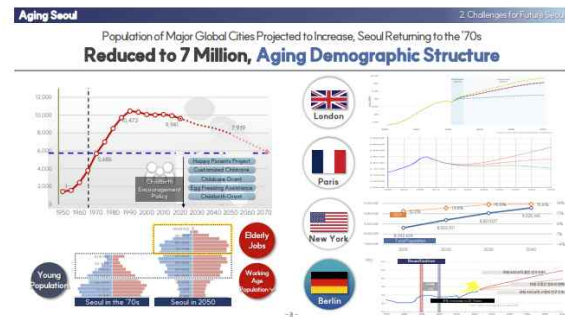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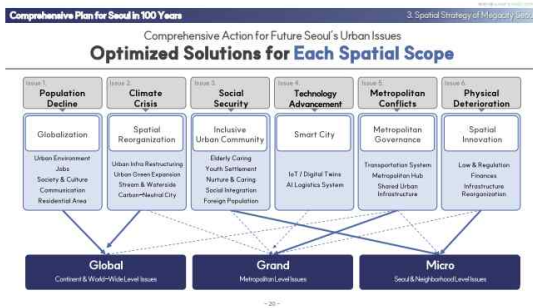
20세기 서울은 서구 대도시에 비하여 뒤늦게 근대화과정을 겪었다.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와 도시확장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한편 서울의 압축적 도시개발로 인하여 자연과 인간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물리적기반 뿐 아니라 문화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프라 투자감소 및 성장동력 둔화 등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압축성장의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 대전환 시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10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울의 도시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래 서울이 타 글로벌 도시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 초고령화 현상과 인구감소 부분이다.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기후위기는 글로벌 도시 전체가 겪는 도전이며 고밀도시 서울의 신중도시형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기술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이 변할 것이며 도로철도 등 대형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정비도 시급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온 광역화 현상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협업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미래 서울에 닥칠 다양한 변화는 20세기에 조성한 공간구조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내 공간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서울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대도시권 차원의 공간단위로 대응하여야 하며 시민, 자치구, 인접시, 중앙정부와 연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행이 중시된 마이크로 서울을 조성하고 대도시권 차원의 메가시티 서울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 위계별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1. 상해 국제컨퍼런스 주요 발표자료



2. 상해 국제컨퍼런스 현장사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박사
(2149-1044)